지역축제와 학교 축제의 차이점과 개선방안

행정학과

20706781 서보림

$Ⅰ$. 서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는 주로 따뜻한 5~6월이나 날씨 좋은 9~10월에 주로 많이 열린다. 대학 축제도 마찬가지로 대구대학교에서는 1년에 2회 축제가 열린다. 주로 학교축제를 ‘대동제’라 하는데 이는 하나됨의 큰 잔치로 화합과 단결을 의미한다. 이의 유래는 군사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70~80년대. 학생들 전체가 단합하는 계기로 기존의 학생축전을 다 같이 크게 모이자는 뜻에서 ‘대동제’란 구호 아래 하나로 단결했고, 여기에서 나타난 ‘대동’의 명맥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함께 어우러진다’기보다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하는 입장이다. 지역민의 축제, ‘풍기인삼축제’와 대구대학교 축제, ‘대동제’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풍기인삼축제

세계적인 명성의 풍기 인삼을 주제로 [영주시](http://100.naver.com/100.nhn?docid=114150)가 주관하고 풍기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화관광축제이다. '지구촌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만고의 영약 풍기 인삼'이라는 [슬로건](http://100.naver.com/100.nhn?docid=99868)을 내걸고 지난날 인삼시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아온 풍기 인삼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성대하게 개최된다. 인삼캐기체험을 비롯해 인삼깎기, 인삼술병만들기, 인삼요리무료시식, 인삼경매, 인삼할인판매장터 등 풍기인삼축제장은 인삼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인삼을 펼쳐놓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삼을 깎아 보는 인삼깎기, 인삼으로 만드는 갖가지 요리를 무료로 먹어볼 수 있는 인삼요리무료시식, 유리병에 인삼을 넣고 술을 부어 만드는 인삼병만들기, 웰빙음료인 인삼칵테일만들기, 인삼의 약효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인삼사우나 등 인삼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풍기인삼축제는 인삼체험뿐 아니라 흥겨운 공연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즐거운 가을나들이를 겸할 수 있는 가족행복축제다. 풍악소리 들으며 인삼향, 사과향 가득한 풍기의 가을을 즐길 수 있다.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축하 멀티쇼, 마술퍼레이드, 사물놀이와 관현악의 만남, 경기민요, 7080 웰빙음악회, 전국풍기인삼아가씨선발대회, 그룹사운드와 색소폰앙상블, 소백산인삼가요제 등 축제기간 내내 흥겨운 공연으로 가득하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통연 만들기 및 날리기체험, 기념품으로 손색이 없는 도예체험 및 천연염색체험, 공기를 맑게 하는 참숯체험을 비롯해 한지체험, 임금님 친필 탁본체험, 솟대만들기, 짚풀공예, 목공예 등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야생화전시, 도예전시, 꽃꽂이전시, 문인화전시 등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1. 대구대학교 축제와 문제점

대구대학교의 축제는 1년에 2회에 걸쳐 열린다. 주로 로데오, 물풍선던지기 등 놀이프로그램과 노래자랑대회, 가수초빙 등 공연프로그램과, 주점 음주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른 대학도 별 다를 것이 없다.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축제라고 대개 모든 강의가 휴강되고 다수의 학생들이 축제기간에 학교에 나오질 않거나, 밤새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그저 초·중·고등학교 때의 봄방학 대학교 버전과 같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대동제라 함은 함께 어울려지는 거라고 했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것 조차 힘들다. 지역주민은 물론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조차 없고, 학생들도 지극히 과에 국한 되어있거나, 그저 이벤트회사의 주도에 휩쓸려가고 연예인 따라다니기에 바쁠 뿐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있지 않아 각 단대 및 주최끼리 행사가 겹치고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나오는 소리에 산만하기만 하다. 그 예로 이번 봄축제에서 락페스티벌과 조형대축제 무대가 서로 바라보고 서서, 한쪽에서는 락밴드 공연, 한쪽에서는 노래자랑으로 서로 묻히지 않으려 볼륨 올리기에 바빴다. 게다가 생산적이기보다 소비중심의 쾌락지향의 경향이 크다. .

Ⅲ. 결론

위에서 풍기인삼축제와 대구대학교축제를 살펴본 결과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지역축제는 지역을 알리기 위해, 학교축제는 학교를 알리기보다는 소속학생들이 즐기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역축제와 비교하여 배울점이 많은 것 같다.

풍기인삼축제는 지역적인 특색을 잘 반영하여 축제를 기획하여 효과적인데 반해 대학축제는 그들만의 특색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그리고 대학축제는 매해 똑 같은 프로그램으로 식상하기만 하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종전의 일반적인 프로그램들로만 구성하는게 아니라 축제의 주제아래 해당 지역의 문화적 배경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위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참여와 더불어 문화의 생산자가 되는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축제는 개별적인 프로그램관리로 복잡하고 산만하고, 또한 획일적인데 반해 풍기인삼축제는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 쉽고 유익하여 대학축제 또한 총학생회나 축제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매끄럽고 유익한 축제진행을 꾀하고, 일반시민 혹은 타학생 등의 잠재적 축제관람객을 생각하고 대구대학교 1일체험프로그램, 대구대 투어 등의 기발한 프로그램들을 구축하여 대구대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장을 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대구대에서는 지난 봄축제 때 올해 2회째를 맞는 취업페스티벌을 축제기간 중에 함께 개최하여 ‘취업골든벨’ 등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색적이고 다양한 취업 특강과 이벤트를 실시하여 종래의 대학축제에서 탈피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